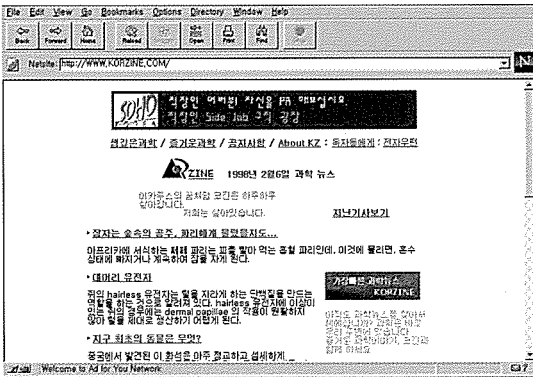




국내 첫 인터넷 과학웹진 등장



▲ 국내 최초의 인터넷 과학잡지 「콜진」의 홈페이지.

생활 속의 과학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인터넷 과학잡지 「콜진」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뉴로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김종민씨 등 재미 유학생 2명과 국내 네티즌 2명 등 모두 4명의 편집인이 발간하는 「콜진」은 난해한 과학이론을 다루는 기존의 과학잡지와 달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과학상식을 다루고 있어 네티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잡지는 크게 국내외 최신 뉴스를 제공하는 생깊은 과학, 생활 속의 정보를 다루는 즐거운 과학, 신비한 과학세계를 다루는 X-FILE, 과거의 과학적 발견이나 사건을 조명하는 역사속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메인 기사격인 뉴스 하이라이트에는 '눈이 튀어 나오면 과연 아들

을 낳을까' '아기를 죽이는 이불' 등 충격적인 읽을거리도 많다.

이 잡지는 알찬 내용 못지않게 제작 및 편집 방법도 독특하다. 한국과 미국에 각각 떨어져 사는 편집인 4명은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잡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매일 편집회의를 갖고 그날 그날 올릴 자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자 잡지와 신문, 인터넷을 뒤져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를 발굴한 후 잡지의 총괄편집 작업을 담당하는 미국의 김종민씨에게 자료를 보내 최종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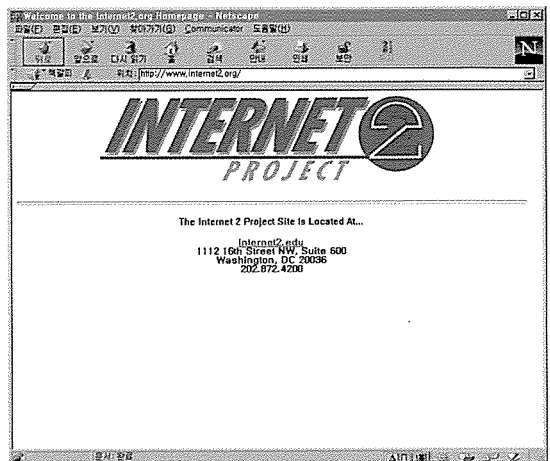
이 잡지는 인터넷의 콜진 홈페이지(<http://www.korzine.com>)에 접속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신기술, 인터넷2 등장 눈앞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

한 인터넷2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인터넷2는 주소(어드레스)의 확장이 자유롭고 데이터 전송속도도 지금보다 1천배나 빨라 현재 널리 쓰이는 인터넷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2는 이미 87년 미국과학재단(NSF)이 운영하는 NSFnet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처음 시도된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곧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6년 10월에는 미국의 3개 대학 대표들이 시카고에서 모임을 갖고 인터넷2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자는데 합의했다. 이후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기업을 비롯해 정부측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 인터넷2를 소개한 I2 홈페이지.

I2로 많이 알려진 인터넷2는 미국 내 수백개 대학들이 공동연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이름이기도 하다. 이 단체의 목표는 대학간 고속 네트워크를 개발해 연구와 교육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회원 대학들에선 시스템개발자와 엔지니어를 앞세워 인터넷2에 사용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최근 상당히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2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즉 인터넷 주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 인터넷주소 및 이름 등록에 제한을 받던 각종 제약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멀티미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리, 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쌍방향에서 동시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터넷2의 주관기관들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네트워크 업체와 비영리기관, 기타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 인터넷2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물은 즉시 공개한다는 세부적인 전략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I2홈페이지(www.internet2.org)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학간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협력관계가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인텔, 아시아인을 위한 민속사이트 개설

인텔은 최근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민속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민속사이트(www.intel.com/kr/hangul/lunar/k_lunar.htm)도 마련돼 있다.

아시아 민속사이트는 아시아지역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을 기념하기 위해 '설날' 웹사이트로 명명됐다. 현재 음력설을 쇠는 인구는 전 세계에 10억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는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나 친척에게 전자우편으로 덕담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 복주머니' 메뉴와 호랑이를 주제로 한 2가지 디자인의 윈도95용 PC 배경화면(wall paper)을 전송받을 수 있는 코너가 설치돼 있다. 또 인텔의 아시아 지부가 있는 홍콩 인근의 명소와 볼쑥놀이를 360도 파노라마 전경으로 볼 수 있는 12개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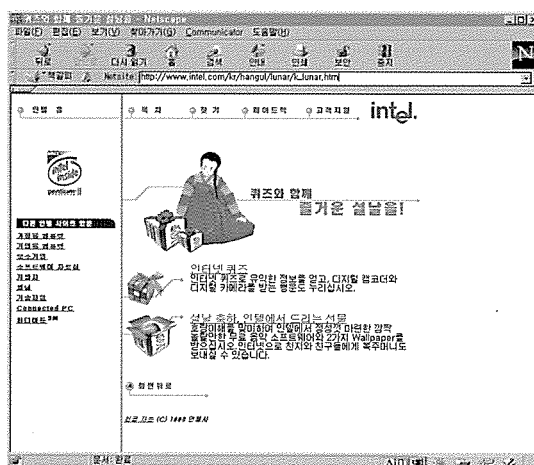
미지가 들어있다.

설날웹사이트에는 이와 함께 PC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AXE'를 무료로 전송받을 수 있게 했다. 하모닉스사가 만든 AXE는 조이스틱이나 마우스를 이용해 연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악기로 별도의 전자건반이 필요없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악이론을 몰라도 손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작곡기능이 들어있다. 또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노래와 섹스폰 악기가 포함돼 있다.

AXE를 사용하려면 펜티엄 90MHz 이상의 중앙처리장치(CPU)와 16MB 용량의 주기억장치, 사운드블래스터 호환의 음악카드가 필요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 5.0이 PC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다이렉트X 5.0은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전송받을 수 있다.

다른 아시아지역 사이트를 방문하려면 www.intel.com/apac/lunar로 접속하면 된다.



▲ 설날웹사이트중 우리나라를 소개한 부분.

가격파괴형 전화서비스 붐물

가격파괴형 국제 및 시외전화 서비스가 등장한다. 3월부터 시작되는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격보다 30~60%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할 수 있다.

LG유통, 포스테이타, 삼성 SDS, 넥스텔레콤 등 4개 업체는 2월 초 정보통신부로부터



▲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외 및 국제전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터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3월부터 본격 사업에 뛰어들었다.

별정통신이란 일반전화와 휴대폰 같은 기간통신 서비스의 틈새시장을 겨냥한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구내통신 등 가격과괴형 서비스를 가리킨다.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통신업체의 회선과 시설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전화는 50% 이상, 시외전화는 30%까지 요금이 저렴하다. 제일엔지니어링 자회사인 넥스텔레콤은 3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서 인터넷폰 국제전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미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1분 통화요금은 340원, 일본은 450원으로 한국통신 요금보다 각각 60%, 45% 저렴하다. 일본 전화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것은 인터넷망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접속되기 때문이다.

LG유통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마산, 구미에 인터넷폰 교환기

를 설치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시외 및 국제전화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이미 1월부터 LG그룹 사옥인 트윈타워에 교환기를 설치하고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삼성SDS는 과천, 수원, 대전, 구미, 부산에 국설급 교환기(SDX-1000)를 설치하고 삼성그룹의 전국 71개 사업장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했다. 삼성SDS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그룹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부터 30% 이상 저렴한 시외 및 국제전화를 일반가입자에게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포스테이터도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인터넷폰을 이용한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을 올 상반기중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4개 업체 외에도 나래이동통신과 아이네트가 미국, 일본과의 인터넷폰 1분 통화요금을 3백~4백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사업자 교부증을 받는데

로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국내 통신시장도 가격과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쳤다”며 “기존 통신업체들의 요금인하 도미노현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MMX 266MHz칩 채용한 신형 노트북 붓물

인텔이 최근 펜티엄 멀티미디어 확장(MultiMedia eXtention)칩으로는 마지막 제품이 될 266MHz MMX칩을 발표하자 이를 탑재한 신형 노트북PC가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우통신은 최근 266MHz MMX칩을 중앙처리장치(CPU)로 채용한 초슬림 멀티미디어 노트북PC를 각각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노트북PC ‘센스650’(모델명 S650T263)은 13.3인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TFT-LCD)를 채택하고 CD롬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다. 두께가 37mm, 무게는 2.7kg으로



▲ 인텔 MMX 266MHz칩을 탑재한 국산 노트북PC가 잇따라 선보였다. 왼쪽부터 삼성 센스650, 삼보 드림북이그제큐티브C57C, 대우 솔로슬림.

슬림화를 실현한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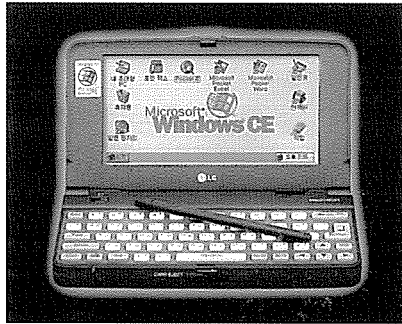
대우통신의 '솔로슬림' (모델명 CN5504K407) 역시 13.3인치 TFT-LCD를 채택하는 등 삼성전자 제품과 사양이 비슷하다. 두께는 38mm이지만, 무게는 2.5kg으로 국내 최경량이다.

삼보컴퓨터도 이 칩을 탑재한 14.1인치 대화면의 노트북 PC '드림북이그제큐티브C57C'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기존 노트북PC에 비해 시스템 운용능력이 약 10~20% 향상되고 멀티미디어 운용에서는 60% 이상 향상된 기능을 발휘한다. 또 새로운 프로세서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보제품은 48MB SD램 메모리에 3.2GB 착탈식 하드디스크, 20배속 CD롬(내장형), 3D 16비트 스테레오 사운드의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다.

컴팩, 도시바, 휴렛팩커드(HP), 델, 게이트웨이2000 등 외국 유력 PC업체들도 266MHz MMX펜티엄 노트북을 일제히 발표하고 고성능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경쟁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의 신제품은 대부분 3천~5천달러대의 고가(高價)로 12.1~13.3인치 액티브 매트릭스방식의 LCD, 4~5G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고속 CD롬 드라이브, 초고속 모뎀 등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올해는 손바닥PC 商用化 원년

'HPC(핸드헬드PC)' 'PDA(개인 휴대단말기)' '오토PC' 등 이동중



▲ LG전자의 모빌리안.



▲ 삼성전자의 인포기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손바닥 PC'가 국내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손바닥PC는 무선통신과 컴퓨터 기능을 갖춰 개인정보관리는 물론, 인터넷 검색과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차세대 정보화기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용 정보단말기나 자동차용 컴퓨터 단말기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서는 HPC가 지난해 말 처음 등장한 뒤 올해 상반기중 컴퓨터와 디지털 휴대폰이 결합된 PDA가 출시되고 8월께 자동차용 오토PC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올해는 손바닥 PC 상용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

이다.

손바닥PC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HPC. 컴퓨터처럼 키보드로 각종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일반 데스크톱PC와 유무선으로 자료도 교환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나 세일즈맨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1세대 핸드PC '모빌리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또 7월께 기능이 더욱 보강된 2세대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네덜란드 필립스와 제휴로 개발한 '인포기어'를 5월부터 국내에 판매할 방침이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기능을 함께 갖춘 PDA도 관심을 끌고 있다. LG전자는 상반기 디지털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결합한 디지털 PDA를 출시하고 삼성전자는 3월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인포모빌'을 판매할 방침이다. 국내 PDA 개발자들이 지난해 창업한 제이텔도 '인터닉스'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토PC도 곧 등장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삼성전자, 대우통신, 현대전자 등 컴퓨터 3사가 오토PC의 상품화를 추진중이며 이르면 8월께 첫 제품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바닥PC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뿐 아니라 호주머니에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노트북PC 등 기존의 휴대형 컴퓨터를 제치고 인기 있는 개인 정보단말기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D)